

2023.10.15.(주일) 열왕기하5:9-15 「깨끗하게 되었더라」 김양재 목사님

9.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10.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11.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2.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나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13. 그의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14.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15.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버지, “고쳐주소서” 기도하니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예 하나님께서 고쳐주소서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말씀하여 주소서.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난주 <고쳐주소서> 하면서 저희들의 아픔을 올려드렸는데 많은 치유가 일어났죠? 매주일 해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는 영원히 아파요. 그죠?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작년 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대대적인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 중동에서도 이슬람 테러 집단인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왜 전쟁이 일어나냐면, 서로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을 탈환하기 위해서 이슬람, 유대인, 기독교인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 사우디의 메카도 평생에 한 번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같이 모여서 천 명이 불타면 성령의 운행하심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탈환하려고 한 치의 양보가 없는데.. 그 성전을 뺏길 수가 없다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다 성전에 와서 한 번이라도 드려셔야 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셔야 돼요. 아셨죠? 대만도 언제 중국이 침략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대만은 지금 전쟁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은 국민이 백성이 몇 명이 죽건 이런 게 상관없어요. 그죠? 자기 권력만 쟁취하면 되니까. 우리 남북 관계도 정전 70년이 지나도록 시한폭탄 같아요. 잃을 것이 없으면 침략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 온 국민이 아사 상태에 빠졌으면 ‘침략해보고 죽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거리에서도, 직장에서도 늘 갈등과 다툼이 이어지는 인생이지만 이렇게 세계 도처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끔찍한 전쟁 범죄가 이어지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마구 죽여대는지... 100%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고쳐주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회개하며 기도해

야 하겠습니까. 이 간절한 기도를 담아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그러기 위해서

1.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9-12절)

이제 나아만을 고치기 위해서 어린 소녀가 안주인에게로, 안주인이 나아만에게로,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로, 그리고 엘리사로 이어지는 우연 같은 만남이 지금 이어집니다. 이것은 **준비된 우연**이었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장중 아래에 있어요. **내 인생 모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기에 내 생각이 들어갈 틈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무언가 이론 사람들은 그 악한 내 생각이 하나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가 가장 어렵다고 하죠.** 자신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양육을 해야겠죠. 9절입니다.

9.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잘 읽어보세요.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렀다고 해요. 여호람 왕에게 갈 때는 은십 달란트, 금 6천 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고 했잖아요. 도움을 청하는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갔어요. 근데 엘리사를 찾아가는 나아만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점령군 사령관의 모습으로**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선지자의 집 문 앞에 딱 섰어요. 이 세계적 지도자인 나아만은 벌써 사람을 차별하고,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기 병이나 고쳐주는 분으로 오해하는.. 이 **‘내 생각’**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대요!”라는 **내 생각**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은 말을 탄 채 “이리 오너라~” 하면서 대문 앞에서 버티고 있어요. 10절을 보니 어떻게 엘리사가 대답니까?

10.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런 나아만을 특별대우하지 않고 여전한 방식으로 사자, 곧 비서를 보내요. (게하시겠죠?) 한마디로 나아만의 **‘내 생각’**에는 이걸 문전박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푸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에

11.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2.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은 분노했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집 문에서 몸을 돌이켜 떠납니다. ★**나아만의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내 생각은 모든 것의 분노를 가져옵니다. 자기가 이론 것이 많을수록 분노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디에 분노했을까요?** 다 분노했지만 한 세 가지쯤 찾아보겠어요.

① **첫째로 선지자 자신이 직접 자기 앞에 나타나지 않아서 화가 났어요.**

아람의 총사령관인 나아만이 누구 집 문 앞에서 기다려 봤겠어요? 어찌다 기다리는 일이 있더라도 곧 집주인이 직접 나와 “아이고! 장군님, 어찌하여 이렇게 누추한 집에 납시겠습니까”하며 영접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여호람 왕도 자기가 왔을 때 탄식은 했지만 어쨌든 찢절맷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왕도 아닌 선지자가, 큰 저택도 아닌 산속 작은 집에 사는 사람이 직접 나와서 인사하기는커녕 종을 보내 처방만 내리니 나아만 장군의 자존심이 확 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한 것이 없는 ‘내 생각’이에요.

② **화가 난 두 번째 이유는, 선지자의 처방도 너무 성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병을 고치기 위해 아람에서 안 해본 주술과, 시술과, 요법이 없었겠죠. 그러니 나아만은 여러 가지를 경험했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적어도 자기의 여호와 하나님께 치료를 구하는 화려한 의식도 벌이고, 이 손을 상처 위에서 막 흔드는 것 같은 “수리~수리~마수리~” 막 이러면서~ 신비한 술법도 쓰면서~ 온 정성을 다해 자기를 치료해 주리라 기대했어요. 늘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선지자라는 인간이 자기 종 한 명을 톡 보내더니 “강물에 가서 씻으면 나올거다!” 말 한마디 툭 던지고 마니까 이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③ **세 번째 이유는 그 처방의 내용도 너무너무 찌질했기 때문이에요.**

나아만이 요단강을 너무 잘 알아요. 북쪽 갈릴리 호수부터 남쪽 사해까지 흐르는 그 강의 길이가 한 360km 정도로 꽤 긴데요. 지형 상 그 물은 흙이 많이 섞여서 색이 누래요. 더러워 보일 뿐 아니라 신비하거나 영험할 것 같은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반면 나아만의 고향,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흐르는 아바나와 바르발은 서쪽 산지에서 흘러나온 강이라서 매우 맑고 깨끗합니다. 전체 길이는 요단보다 짧아도 훨씬 생명력이 있어 보이는 강이에요. 그러니 나아만 입장에서는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 요단강에 들어가는 게 전부라면 굳이 적국 깊숙한 곳까지 올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집 옆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이 요단과 비교할 수 없이 깨끗하고 좋기 때문이죠. 그러니 요단에 들어가면 나올 것이라는 처방은 나아만에게 너무~너무~ 초라한 치료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서 하는 내 생각은 이 분노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짹 떠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도.

‘말들과 병거들’이 상징하는 나아만 장군의 자존심과 자부심이 있어요. 나아만은 **내 생각**으로 특별히 짹 차서 거만할 수밖에 없는 군대 장관이에요. 이런 거만한 나아만에게 엘리사의 태도나 그가 전한 말씀은 속을 디비지게(뒤집어지게?)하는 막 그냥 공격일 뿐이에요. 도저히 봐줄 수도 없고, 들어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이 짹 차 있는데 들어야 할 말씀이 들리지 않죠.** “지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

으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은 나아만의 병을 고쳐줄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태도가 어떻게~ 내용이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는 **내 생각**이 짝 강하게 있는 거예요. ‘내가 맞는데~ 내 방식이 옳은데~ 당신이 뭐를 알아? 당신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세계를 알아? 정치를 알아?’ 이러는 거죠. 근데 ‘내 방식이 옳은데 왜 여기에 못 맞추냐?!’ 이런 확신이 가득한 거예요. 이것이 **거만한 내 생각**이죠.

나아만이 나병이라는 고난이 있으니 자기 집 여종이 전한 말을 들었고, 왕에게 부탁을 했고, 직접 이스라엘 왕에게 왔어요. 또 그가 알려주는 대로 엘리사의 집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그가 낮아질 수 있는 ‘내 생각의 한계’였어요. 여러분, **내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오늘 간증한 우리 김태성 집사가 생각에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죠? 나아만 같다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성품으로 모든 걸 다 이루었어. 여종 말도 잘 듣지~ 나아만 최고야. 그죠? 그런데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데 그래 이까짓 거 못 참겠냐! 한 번만 더 참는다!’ 이러면서 엘리사 집까지 왔어요. 그래서 참고참고 그 자리까지 왔겠죠. 김 집사님도 그죠?

그런데 엘리사가 자기를 맞는 태도를 보고, 그가 내린 처방을 듣자 지금까지 참았던 화가 압력솔 터지듯 한 번에 폭발했어요. “내가 더이상은 못 참는다!” 부부 간에도 참고 참고 참다가 “더이상은 못 참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품으로 하면 터지는 때가 와요. 누르고 눌러도 눌러지 않는 내 생각의 거만함 때문이에요. 금 그릇이 아무리 낮아지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튕겨져나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만함은 잘난 사람들만 갖는 태도가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마음이 다들 **종류별로 있어요.** 나아만의 거만함은 “나만 잘났어!!” 하는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죠? 2장 3절¹⁾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해요. 빌립보교회 개척 멤버가 누구죠? 옷감 장사 루디아, 귀신 들렸던 여종. 감옥을 지키는 간수 아닙니까? 빌립보는 로마의 인정을 받는 대단한 도시였지만 거기서 바울의 전도를 듣고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전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기억나시죠? 오히려 하찮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사회의 무시와 조롱을 받으며 복음을 지켜 교회를 키웠는데요. 결국 이들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빌립보서 내용이**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누구든 본성으로 ‘내가 남보다 낫다’ 하는 거만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00%.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는 바로 이 나아만의 한계인 거예요. 이게 나병이 아니면 나아만의 한계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 ‘내 생각’은 어디서나 있다는 거죠. ‘나는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1) 빌립보서2: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생각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교묘하게 자신을 남보다 높이려고 하는 존재인지를 증명해주는 생각이예요. ‘나는 남보다 낫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생각이 제일 교만한 생각이예요. 그것이 가장 자신을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교만함의 끝판왕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에서 나누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찌질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저거 왜 찌질하지? 나는 재보다는 나아.’ 이런 사람들. 제일 교만한 사람들이라고요. 나눌 때마다 뭐라고 그러죠. 그죠? 내 생각의 이 거만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거만함은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커집니다. 이 거만함은 말씀을 들을 수 없게 하고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결코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복의 첫째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나아만이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충성심 있고, 권세 있고, 아내 말 들을 줄 알고, 계집종의 말도 듣는! 그야말로 최고의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내 생각의 한계인 자기 성품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 설교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지금 골치가 아프잖아요.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라고 그러지!!’ 맹렬한 분노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초대 총리 벵구리온은 청년 리더 시몬 페레스를 눈여겨보면서 1년만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를 한 20년 가까이 잡아두고 의지를 했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그 청년을 그토록 믿어요?” 그의 대답은 항상 같았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청년은 첫째 거짓말을 하지 않고, 둘째 결코 다른 사람의 흉을 보지 않고, 그리고 그 청년은 세 번째 내 방에 올 때마다 대부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찾아왔다고 언제나 한결같았다고.”

우리가 한 사람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로 이런 시몬 페레스 같은 사람을 말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벵구리온이 사회주의자였잖아요. 근데 자본주의로 바꾼 사람이예요. 그리고 일생을 테러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1993년 오슬로 평화협정을 맺어 가지고 1994년에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이예요. 그 한 사람의 아이디어 때문에 이스라엘이 건재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분은 잘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생각처럼 보여요. 그래서 총리를 10번 하고, 대통령 2번 하고 92살인가에 가셨는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봐도 어쨌든 내 생각을 버리고 남을 낮게 여기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남을 낮게 여기니까 흉 보지 않겠죠. 고집을 버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무슨 아이디어가 뭐가 있겠어요.

모두가 내 생각을 부르짖습니다. 피해의식으로, 혹은 권세로, 혹은 집착으로, 혹은 옳고 그름으로. 다들 내 생각을 부르짖기 때문에 부부간이고, 집이고, 교회고, 나라고 죽자고 싸우는 거예요. 정말 이거를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정말 대단해요. 그러나

참 또 이스라엘은... (여기까지) 아직도 나라적으로 선민의식이 대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중동 지방에서 유일하게 잘 사는 나라잖아요. 인구 천만이 전 세계를 지금 리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금 그릇이에요. 정말... 그리고 지금 전쟁 중에도 너무 침착하잖아요.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살아요. 저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세계의 판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큐티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찾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는 훈련이에요. 다들 문제가 안 풀리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면서 다 같이 큐티하며 질문하기에 우리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 적용 질문이에요.

Q. 내 생각으로 분노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자존심, 자부심, 특별대우 등등 말이죠.)

Q. 그리고 더 나가서 말씀을 듣고 분노해서 예배나 목장의 자리를 박차고 떠났던 적은 없습니까?

Q. ‘나는 적어도 거만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나의 고등교만, 고등거만이 있을까요?

Q. 그래서 가족, 직장, 목장을 향해 ‘내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라며 거만하게 기대하는 내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 정도는 나한테 해줘야 되잖아~’ 회사에서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잖아~’ 목장에서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잖아~’)

자, <깨끗하게 되었더라>는 먼저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2. 벌 때처럼 나아와 해석해 주는 지체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13절) **(벌 때 공동체의 처방을 들어야 됩니다.)**

13. 그의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그러니까 말들과 병거들을 몰고온 나아만 행렬은 지금 분노해서 왔던 길을 돌아가고 있어요. 나아만은 지금 너무 열받았어요. 지금 천하보다도 귀한 자신의 힘과 시간을 들이면서 온 길인데 병을 지금 고치지 못하고 헛걸음을 했으니 이제 너무 속이 상해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이제 그 어린 소녀를 잡아 죽이려고 벌렸을 거예요. 수행하던 종들도 잔뜩 분노하신 장군님 눈치 보느라고 아무 말도 못 하면서 갔을 거예요. 종들은 장군님 눈치 보느라고 당장은 아무 말도 못 했지만은 돌아가는 길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건 아니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는 장군의 부하 중 제일 높은 사람 한 명이 혼자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혼자 감당할 상황이

아니예요. 그래서 오늘 복수로 ‘종들이’ 그러잖아요. 종들 여럿이 함께 벌떼처럼 이제 장군에게 나아가는 거죠. 여기서 ‘나아오다’는 [나가시]라는 뜻은 그냥 가까이 간다는 뜻이 아니라 아랫사람이윗사람에게 공손한 태도로 나아가는 거를 말해요. 기분이 많이 안 좋은 장군님을 잘 설득하려고, 기분이 또 상하 상하시지 않기를 바라면서 꼭 들으셔야 하는 말씀을 올리려고 그런 마음에 준비를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아마 그냥 벌떼처럼 나와서 장군 앞에 다들 납작 엎드렸을 거예요. 이런 거 핑크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장군을 지금 장군님이라고 하지 않고, 주인이라고도 하지 않고 ‘내 아버지여’라고 불렀어요. 내 아버지여. 주인을 향한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지금 이 종들이 잔뜩 굳은 나아만의 마음을 녹이는 아이스 브레이킹- 마음 열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요. 아셨어요? 목장에서든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나아만을 설득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어려운 일 하라고 말했다면 그대로 하셨을 것 같은데요.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시라고 하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떠오르는 해를 보고 비시라고 하면 이런 건 잘할 거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는 게 그렇게 힘들다 그러더라고 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예루살렘도 굉장히 해발 800m 고지에 있어요. 그 사해는 마이너스 400m라고 그래요. 이 지상에서 그렇게 400m에 있는 이 지상에서 그런 사해.)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라고 하면은 나아만이 이런 건 잘할 거잖아요. 그죠? 이 힘든 거. 열심히 올라가서 떠오르는 해를 보고 빌어라. (예루살렘이 해가 딱 올라가는 지점에 있어서 그게 워낙은 태양신을 섬기는 자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예루살렘이 뭐 태양이 어찌고저찌고 한 의미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선지자가 하라고 말한 것이 너무 쉬워서 우습죠?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아니~ 흙탕물 같은 요단강에 내려가서 씻으라니 말이 됩니까? 어휴! 기가 막혀. 그래도요~~~ 여기까지 오셨으니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휴, 나는 이래본 적이 너무 많아서. ^^ 여러분들은 “싫다면 싫어! 가려면 가! 지병 낫는 거지 우리 낫는 거야?” 여러분들 이러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깐 모두 옆에서 “저도! 저도 한표! 저도 똑같은 생각이예요! 저도! 저도!” 종들이 그냥 칼날에 물방울처럼 조심하며 벌떼처럼 설득을 했어요. 여러분 구원을 위한 이런 태도가 너무 중요해요. 수넬 여인처럼 “평안입니다”.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처방하는 방식과 내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마음이 높아서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튕겨져 나가잖아요. 나아만이 내 생각으로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는 말씀을 그의 종들은 들었어요. 종들은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고침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장군보다는 비천한 환경에 있는 종들이 말씀을 들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낮았잖아요. 말씀을 쉽게 받아

들이고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낮은 환경에 있어요. 종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낮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대한 칭송을 하지 마셔야 되요. 하나님이 그 환경을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평소 당한 게 많기 때문에 분노하는 주인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종들은 요단강에 들어가기도 또 굉장히 쉬워요. 이 종들은 더럽다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벌떼같이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뜻이 아니에요~ 화를 내실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순종해야 될 이유가 지금 100가지도 더 돼요~ 절대 손해 나는 일이 아니라니까~~” “아니, 이혼은 내일 해도 되는데~ 지금 와서 한번 들어보시라니까~ 그거 지금 이혼하는 게 뭐가 급해요? 지금 이제 돌아가는 데!! 눈 딱 감고 말씀대로 한 번만 해보시라고~” 어려운 선지자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해석해서 외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벌떼처럼 나와서 해석해주는 지체가 있을 때 이제 물에 들어가기에 쉽게 되죠. 그죠? 우리가 이혼하고 싶고, 자살하고 싶은 생각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겉으로 아무리 거만해 보여도 속으로는 살 수가 없이 힘들고,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강해 보여도 속은 다 연약해요. 이 곤고함을 홀로 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이 벌떼처럼 나와서 말씀을 해석해 주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그대로 있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그대로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혼도 막아지고, 자살도 막아지는 거죠. 우리는 다 연약하지만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다 이상하지만 우리 청년부에서 이혼을 안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다 이혼하고 싶어 죽겠어~ 청년부들도. 다 죽고 싶어 죽을 지경이야. 근데 매주일 벌떼 공동체가 달려들어서 막 해 주는 거예요.

■ 적용 질문이에요.

Q. 여러분은 말을 잘 듣는 편입니까? 일단 “아니!! 그게 아니고!!”부터 하는 편이에요? (“당신이 날 모르잖아. 그렇지?”)

Q. 벌 떼처럼 나아가 외치는 지체들의 말을 들었더니 어느덧 깨끗함을 얻은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공동체를 ‘맹신주의’라고 생각합니까?

진짜 와가지고 “예배에 오고, 목장에 오면 이혼을 해주겠다.” 하는 말을 듣고 오셨는데 ‘여기가 이단이 아닌가?’ 생각하다가.. “이단은 아닌 것 같은데 공동체 맹신주의가 있네요~” 그러면서 계속 이혼을.... 반드시 생각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들은 것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Q. 지체들과 함께 나아가 공감해주고 해석해 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 3년간 목장에 참석하면 회개도, 적용도 하지않는 부부를 향해 벌떼처럼 권면한 부부목장 식구들.

그래서 오늘은 벌 떼 처방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목장에 잘 참석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처방에도 순종하지 않는 집사님 부부를 권면하는 목장 나눔이에요.

3년이나 됐는데 큰 사고가 난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 벌 떼 처방도 이럴 때

하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상으로 받은 와인병에 화풀이하며 깨려고 하는 아내를 말리며 몸싸움을 하다가 그 병에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큰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랬는데 목장엔 또 다 왔어요. (병에 머리를 맞아도 다 오는 거예요.)

목자님이 “집사님은 대체 왜 처방을 했는데 속이고 세상 모임에 나가십니까? 죽는 걸 알면서 나가는 집사님은 공동체의 권면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장모님께 보내는 카톡은 부인 집사님과 상의하셔서 합의된 내용을 분별하여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동체에 나오는 이유와 사명이 무엇인지 그렇게 말씀드려도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여 회개하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 분을 3년째 흘려보내지 않고 뵙지만 변함이 없으십니다. 공동체에서 들으라고 하셨는데 자꾸 각자 산당을 지으십니다!!” (어이구 무섭죠?)

그랬더니 다른 목원이 “전 하루만 쉬고 싶어도 오늘 쉬면 내일을 걱정해야 하기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잘 먹고 잘살면서 좋은 환경인 두 분이 왜 그리 싸우시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죽을 것 같아서 나는 가게도 하나 더 해보려 하지만 목장에서 하지 말라고 권면하시기에 일주일을 목장에 와서 듣는 적용 하나로 버팁니다! 왜 싸우시면서 목장은 나오세요? 예배는 잘못 드리시면서 기도만 해달라고 하시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안 듣고 안 되면 안 나오시고 하지 말고 이혼하시고 떠나셨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큼니다! 두 분은 그냥 잘 살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리들 싸우십니까?! 목장에서 답을 다 알려주는데도 매주 일부러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목원께서, “아니~ 목장에 행복해서 즐기려고 나오시는 집사님 한 분도 없어요! 여기 이 자리에 와서 듣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절박함이 있어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공동체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하는데 왜 듣지 않고 구원이 뭔지, 회개가 뭔지 모르겠다고 날마다 그러세요?! 목사님이 정신과 가라는 얘기는 믿음이 없어 들을 힘이 없으니 일단 병명을 알고 인정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첫걸음이 나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치료받으시라고 하는 것이죠. 목자님 처방대로 약 드세요!! 3년을 미루셨으면 이제 들으실 때 되셨습니다. 내일 당장 약 드십시오! 우리는 공동체 누구라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인정하시고 약 드세요! 우리 안에서 변하시는 두 분 보고 싶습니다. 두 분의 회개를 위한 목장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드디어 이 집사님이 “네,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한 거예요.

(아휴~ 박수 한 번 쳐요.) 그러니까 목자님이 “우리들교회에서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변화가 안 되면 결국 말씀이 안 들리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건이 변하는 건 없습니다. 내가 말씀 듣고 변해야 합니다. 모두들 말씀 안에서 변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목장 식구들만 있으면 소도 잡고, 말도 잡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목장 식구들 너무 참 귀엽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사랑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 듣고 떠나면 나아만이 분노해서 떠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감히! 나한테!! 내가 제일 잘 사는데 말이야!! 감히 나한테~” 이러면서 떠나는 거하고 똑같죠? (아무도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아요. 목장에서 날마다 그러시고 계시는가 봐~)

그러니까 또 어떤 부목자님은 행복 강의로 유명한 하버드의 탈 벤 샤하르 교수님을 포럼에서 비대면으로 만났고, 질의응답을 할 기회가 있었대요. (대단한 분이 우리들 교회 부목자네요.) 행복의 핵심 요소는 돈에 좌우되지 않고, 육체적 건강을 바탕으로 강한 유대 관계감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관계는 육체적 건강까지 좋아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강의를 들어보면 목사님 설교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더 논리적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별 때 목장이 최고의 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들교회는 나아만에게 복음을 소개했던 어린 소녀들이 많기 때문에 별 때 목장이에요. 아셨죠? 정말 이렇게 해석하는 이 목장 식구들 너무 진짜 매력 있고 귀하지 않으세요? 왜 고개를 끄덕거리질 않아요?^^

자, <깨끗하게 되었도다> 세 번째는,

3.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14-15절)

14.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15a.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아만은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아람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 요단강 쪽으로 내려 갑니다. 종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합니다. ‘내 생각에는~~’ 할 때는 분노했는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적용하도록 도와서 내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낮아지게 됩니다. 종들의 말을 인정했어요. 그 모든 처방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것어요 실제로 실천하기는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처음 몇 번은 몸을 씻을 수도 있죠. ‘까짓것 밀쳐야 본전인데..’ 그런데 한두 번 했을 때 몸이 조금이라도 변하면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할 것 같은데... 7번이 될 때까지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목장에 와서 갑자기 변하면 좋겠지마는 영적 진실성의 결과는 인내니까 이렇게 되면 대개의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한 진실성에 의심을 품고 하던 일을 중단하기가 쉽죠.

좋은 강에 들어가서 고친다면 이게 주술과 다름이 없죠. 근데 ★말씀대로 순종해서 치유가 일어난 것이죠. 강에 들어가서 치유되는 게 아니죠. 그동안 수많은 제안과 편지와 대화가 오고 갔지만 실제 치료는 너무 간단하게 끝나쳐지는 거예요. 열왕기서 기자는 ‘나아만이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요단강 물속에 자신을 완전히 잠글 정도로 내려갈 뿐 아니라 그 일을 7번 반복해요. 아울러 성경에서 ‘물에 잠기는 것’은 주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죽어지는 순종은 십자가의 겸손을 의미하고요, 회개를 의미하고, 거룩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속에 몸을 전부 집어넣는다, 잠근다.’ 이게 [타발] 동사인데요. 10절에 엘리사가 명령했을 때는 [라하츠]를 썼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엘리사가 명령한 이 [라하츠] 동사보다 [타발]은 더 철저하게 몸을 씻었음을 보여줘요. 그 ‘몸을 잠그다’라는 의미인 [타발]은 성경에 16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단어인데 주로 제사 의식이나 정결 의식에서 피나 물에 몸을 담그는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7’은 완전함을 나타내는 완전수죠. 그래서 레위기 14장의 정결례에서 7이라는 숫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14절 마지막에 ‘깨끗하게 되었더라’는 이게 좀 어렵지만, 들어보세요. 계속적 [와우]에 ‘깨끗하다’는 의미를 지닌 [타하르]의 미완료형이 결합된 형태인데요. 이제 해석을 하면, 나병에 걸린 나아만의 흉측한 피부가 마치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된 일이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게 아니라 요단강에 7번 몸을 이렇게 담근 직후에 바로 단번에 이루어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리고 때 13바퀴 돌 때까지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마지막에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 14절의 [타하르]는 ‘병의 치유’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데요. 이 단어는 제사 의식이나 정결 의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레위기 14장 문맥에서 [타하르]는 단지 ‘깨끗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만큼 나아만은 엘리사가 명령한 것보다 더 진심으로! 기대치보다 회개를 했고, 그러므로 단순히 나아만을 육적으로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라는 거죠. ★병 낫기보다 이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한 결과, 그 살이 어린아이처럼 되었다는 것은 나아만도 그 2절에 어린 소녀가 가졌던 믿음을 똑같이 갖게 되었다는, ‘어린아이의 살 같이’ 희어졌잖아요.

이 같은 회복을 체험한 후에 오늘 15절에 엘리사에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 ‘도로 와서’ [슈브]동사는 거의 대부분 영적인 회심을 수반하는 특징을 가져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두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궁극적으로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료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갖고 있어

요. 성도 여러분, ★결국 깨끗한 자는 살아난 자이고, 살아난 자는 겸손한 자이고, 겸손한 자는 남을 낮게 여기는 자! 이것이 깨끗한 자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 적용 질문이에요.

Q. 여러분은 병 낮기가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연약해서 정말 저는 여러분의 그 병을 위해서 너무 애통이 돼요. 날마다 날마다 기도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면 낮게 하실 줄 믿거든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목적이어야 돼요. 아까 이 목장 식구들처럼 그게 하나님 백성의 일원인 거예요. 들으셨죠?

7번 물에 잠기는 이 죽음에 이르는 순종은 세상에서도 주인의식을 가지면 하게 되는 거예요. 회사가 힘들어지면 사장은 못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주인의식! 주인들은 죽음에 이르는 그 겸손의 순종을 하게 되거든요.

■ 유일하게 스스로를 낮추며 백성들에게 대국민 사과를 한 인조 왕.

광해군 때문에 반정을 일으킨 인조 왕과 광해군을 비교하면, 광해군은 오히려 그 많은 실정을 뛰어넘는 실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광해군을 잘못했다고 개혁을 일으킨 인조 때는 왕이 되자마자 이괄의 난, 정묘호란, 병자호란 뭐 그냥 끊임없이 내우외환²⁾이 일어났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인조 때 우리나라가 진짜 없어질 뻔했어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지경에서 인조가 도망을 가니까 백성들이 도망가지 말라고 배를 숨겼다고 그래요. ^^;

어휴, 저는 이 조선 왕들을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조선 왕들을 외웠어요. 우리 중학교 시험에 ‘태정태세문단세 / 예성연중인명선 / 광인효현숙경영 / 정순현철고순’^^ 그래서 그 왕들에 대해서 어렸을 때 다 그 역사를 읽어야 되는데.. 항상 역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조선의 왕이 3D 업종 중에서 최고의 3D 업종이야. 그 왕이 됐다는 거 때문에 모든 걸 다 혼자 처리하느라고 다 일찍 죽어. 그러니까 이 인조가 왕을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밑에.. 누구였죠? 김자점이 막 하라고 해서. 드디어 인조가 그렇게 피해 당기고.. 조선왕조에서 전무후무한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외로운 성에서 포위당한 채 봄을 맞았다... 자식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은 천성인데 - 하늘의 성품인데- 나는 지금 두 아들과 두 며느리를 모두 북쪽 청나라로 떠나보냈다.’

청나라 후진타오한테 그 얼마나 비굴한 굴욕을 당하고 나라를 지켰어요. 9번을 절하고 올라가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부하들이 그냥 우리 유교적인 나라에서 나라가 죽든 살든 이 부하들은 절 못해요. 그래서 더 힘든 일이 생겼어요. 사과를 못해요.

2) 내우외환 (內憂外患)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걱정거리.

사과를. “우리가 조선의!! 어디서!!! 우리가 사과를 할 수 있는가! 저 오랑캐들한테!”
오랑캐 좋아하네~ 청나라가 훨씬 위에 있는데.. 그런 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보건대 백성을 기르는 자리에 있으면서 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백성에게 화를 끼쳤다. 군사들은 전장의 원혼(魂)이 되게 했고, 죄 없는 백성들은 모두 포로가 되게 하여, 아버지는 자식을 보호하지 못하고 지아버는 지어미를 보호하지 못하게 하여 가슴을 치고 하늘에 호소하게 하였다. 백성의 부모가 되어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 이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머금고 오장이 에는 듯하여 뜬눈으로 밤을 새운다.’

-인조가 내외의 군인과 백성들에게 내린 교유문(敎諭文)-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고 나의 죄를 운운하면서 백성들에게 머리를 숙인 자는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왕으로서 사과를 한다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한 사람이 중요해요. 청나라 황제를 놓고 신하들이 배례³⁾를 하지 않았어요. “저 오랑캐”라고. 전쟁이 커졌죠. 정말 다 바보 같아요. 우리만 잘나면 남이 알아주나요? 그전에 선조도 임진왜란 때 백성들에게 사과하지 않았어요. 도망가면서까지도. 그런데 인조가 얼마나 낮아졌으면 이런 사과를 했겠어요. 나아만 낮아져서 물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날마다 사과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사과를 한 게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까지 남아 있잖아요. 우리의 사과는 천국에서도 여러분의 모든 자손들에게 영원히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인조가 그다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미치기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권력 앞에서 예외가 없어서 8년이나 청나라에 보냈던 소현세자가 돌아오니까 소현은 청나라의 문물을 배워가지고 이제 나라를 좀 개혁을 하고 바꿔봐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 아들을 견제해서 독살했다는 설이 있잖아요. 이렇게 권력 앞에서는 그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고 내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어 깨끗해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 탄 게 하나도 아니고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며 적어도 내가 바보처럼 그렇게 속고 당하고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그건 욕심을 내려놔야 되요. 깨끗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을 맺어요. <깨끗하게 되었더라>는 그래서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벌떼 공동체의 처방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지난번에도 고쳐달라고 했는데 오늘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깨끗하여졌더라고 하니까 오늘! 오늘은 진짜 나아만의 병이 고쳐졌어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우리가 찬송하겠습니다.

3) 배례(拜禮) 절하는 예(禮). 또는 절을 하여 예를 나타냄.

♪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 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 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 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 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 주셔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 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 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 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 오리
나의 병을 고쳐 주심 참 감사합니다 ♫

이 찬송이 나아만의 신앙고백 같죠? 여러분들도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달라고. 이제 나의 병을 고쳐주심을 믿는다고. 구원하신 말씀을 어디든지 전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 병이 고쳐지는 것이지 아무 이유도 없이.. 근데 지금 나아만이 사명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기도제목입니다. 우리의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도록 기도하십시다. 깨끗하게 나으려면 내 생각을 버리도록 기도하시고, 깨끗하게 낫기 위해 별떼 공동체의 처방을 귀히 여기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깨끗하게 낫기 위해 하나님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 죽어지는 겸손을 달라고. 이 교만한 사람은 어디를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중동전쟁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과 열강들이 그 무슬림의 경제 부흥을 위해서 전략을 짜는 구체적인 좀 노력을 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잘 살면 저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나만 잘 살겠다고 하니깐. 우리나라의 이 진영논리가 정말 객관적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나아만을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시옵소서. 그런데 내 생각을 버리라고 하시는데 머릿속에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 별떼가 나를 위해 권고하지만 ‘니가 나를 어떻게 알아? 살아봤어?’ 하면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일곱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죽어지고 썩어지고 그런 밀알이 되지 못하니 주님, 각종 질병이 영육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주님, 그래도 내 병이 왜 왔는지 오늘 이렇게 알았으니 주님, 이 모습 그대로 고쳐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시니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제 회복되어 깨끗하도록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각자 나의 아픈 부위, 내 가족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각종 암과, 오장육부에, 내과, 외과의 모든 질병과, 심장병과, 심장 판막에, 신경병에, 신경통에, 녹내장에, 안과질병에, 치매에, 간질에, 교만에, 열등감에, 시기, 질투와, 음란과, 나태와, 탐식과, 비난과, 판단과, 불평과, 신경질과, 미움과, 실증과, 무관심과, 냉정과, 경계성 인격장애에, 나

르시시즘과, 의심병과, 의처증과, 의부증과, 가스라이팅과, 분노조절장애와, 고집과, 이기주의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여자 중독, 남자 중독, 폭력과, 언어폭력, 게임 등.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니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질병이 있는데 이 나만의 나병을 고쳐주신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이 모든 질병에서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피 묻은 손을 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드리는 이 성령의 불로 다 지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지져주시옵소서! 불로 불로 불로 지져주시옵소서. 지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별떼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전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주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혼 안하는 우리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막는 모든 법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끗하게 되었더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여 드린 저희의 헌물을 흠향하여 주시옵시고, 내 사랑하는 주님께 드릴 것만 있고, 사람들에게 줄 것만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깨끗하게 된 가치관으로 저희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저희들의 회사와 사업과 공부와 프로젝트와 아이디어에 주님, 기름을 철철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약] 2023.10.15.(주일) 열왕기하5:9-15 「깨끗하게 되었더라」

가정에서도, 거리에서도, 직장에서도 늘 갈등과 다툼이 이어지는 인생이지만 지금은 세계 도처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까지 일어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회개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담아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9-12절)

Q. 내 생각으로 분노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자존심, 자부심, 특별대우 등등 말이죠.)

Q. 그리고 더 나가서 말씀을 듣고 분노해서 예배나 목장의 자리를 박차고 떠났던 적은 없습니까?

Q. ‘나는 적어도 거만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나의 고등교만, 고등거만이 있을까요? 6

Q. 그래서 가족, 직장, 목장을 향해 ‘내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라며 거만하게 기대하는 내 생각은 무엇입니까? 6

2. 벌 떼처럼 나아와 해석해 주는 지체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13절) (벌 떼 공동체의 처방을 들어야 됩니다.)

Q. 여러분은 말을 잘 듣는 편입니까? 일단 “아니!! 그게 아니고!!”부터 하는 편이예요? (“당신이 날 모르잖아. 그렇지?”)

Q. 벌 떼처럼 나아와 외치는 지체들의 말을 들었더니 어느덧 깨끗함을 얻은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공동체를 ‘맹신주의’라고 생각합니까?

Q. 지체들과 함께 나아가 공감해주고 해석해 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 3년간 목장에 참석하면 회개도, 적용도 하지않는 부부를 향해 벌떼처럼 권면한 부부목장 식구들.

3.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14-15절)

Q. 여러분은 병 낫기가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목적입니까?

■ 유일하게 스스로를 낫추며 백성들에게 대국민 사과를 한 인조 왕.